특별기고

약봉 서성의 어머니

이 희 용
포천예총 회장

조선 후기 권력의 주류(노론)를 형성했던 가문으로 대구(달성) 서씨가 있다. 세간에는 '서지약봉(서씨 가운데에는 약봉 서성이 유명하다)'이라는 말이 회자되었는데 이는 행정의 달인으로 유명했던 약봉 서성의 능력을 높이 사는 말이었다. 대구(달성) 서씨는 팔대를 잇달아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여 고위직을 휩쓴 진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결정적 순간에 극단적 변화를 통해 가문을 일으킨 약봉의 어머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설화에서의 공통된 내용과 사실기록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한다.

설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약봉(藥峰) 서성의 어머니 이씨부인은 재덕(材德)을 겸비한 어진 부인으로 어려서부터 두 눈을 다 못 보는 맹인(盲人)이었다. 그가 자람에 그의 아버지는 늘 눈먼 딸을 측은이 여기고 어떻게라도 시집을 보내 그로 하여금 인생을 원한이나 없게 하여 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매파를 놓아 딸의 눈먼 것을 속여 혼인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날 집안이 가난하여 결혼 할 아들이 있지만 마땅한 혼처가 없어 고민을 하고 있는 서씨 가문에 이르러 매파는 마음씨 곱고 인물 좋고 음식 솜씨 좋고 바느질 솜씨가 좋은 참한 규수가 있다고 자랑삼아 떠들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 서씨부모는 매파를 붙들고 그렇게 참한 색시가 있으면 중매를 서 주시게 하며 매달렸다. 매파는 '헌데 조금 멀어서' 라며 말끝을 흐렸다. 신랑의 부모는 멀면 어떤가? 멀어도 좋으니 다리를 놓아주게나. 그러자 매파는 '멀어도 한 참 멀다' 고 허풍을 떤다. 그러자 신랑부모는 아무리 멀면 어떤가? 괜찮으니 서둘러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다. 매파는 나중에 딴말하면 안 된다고 다짐을 받는다. 그렇게 신부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는 양가의 신분만 확인하고 사주단자만 오고가면 매파의 말을 믿고 혼사를 치르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한다.

신랑은 가난한 선비 서해(徐懈)였는데 혼인 날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른 다음 첫날밤에 신부를 대하고 보니 백년을 해로할 신부가 눈먼 장님이었다. 너무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신부의 모습은 눈은 멀었을지언정 몹시 어질어 보이고 덕이 있어 보였다. 신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첩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폐안(廢眼)이 된 몸으로 외람히 낭군을 섬기려고 하였으니 어떠한 미움과 죄라도 감수하겠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오직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옳지 않은 줄 아시면서 속여 혼인을 한 것이니 모든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부모를 원망치는 말아 주십시오. 다행히 낭군께서 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들고 뜰을 쓰는 소임이라도 맡겨 주신다면 세 사람을 살리시는 큰 은혜로 여겨 본분을 다하겠노라며 구슬프게 눈물을 흘렸다. 그 태도가 현숙하고 도리에 맞아 신랑은 속으로 크게 감동하여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황망하여 미처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신부는 품속에서 칼을 꺼내 들고 이 몸이 취할 길은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라며 자결하려고 했다. 깜짝 놀란 신랑이 이를 막고 위로하며 신부의 치마에 동고동락을 다짐하는 글귀를 쓰며 혼인의 마음을 새기게 된다.

이렇게 혼례를 치른 이씨부인은 효로써 시어머니에게 섬기기를 다하고, 순함으로써 남편을 섬기니, 내외간의 의가 좋아 늘 집안이 화목하고 즐거움이 넘쳤고 살림을 잘 꾸려 사는 것도 점차 나아졌다. 그러나 서른도 되기 전에 아들 하나를 남긴 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남편의 삼년상을 치르고 아들을 데리고 안동을 떠나 서울 약현(藥峴)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부터 택호(宅號)를 약봉댁이라 불려졌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약봉댁은 묘한 솜씨로 술을 빚고 약과를 만들어 팔아 집안 살림을 해나가며 아들의 학자금을 대게 된다. 찹쌀에 대추와 밤 거기에 계피를 넣어 밥을 만들었고 또 온갖 약초와 국화를 넣어 빚은 술을 만들었다. 특유의 손 감각으로 정성껏 과자를 만들어 술안주로도 팔았다고 한다. 맛이 너무 좋아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지경이었다. 저녁때가 되면 오늘은 약봉댁에 가서 약봉댁 술에다 약봉댁 과자를 안주로 해서 한잔하고, 약봉댁 밥을 먹으러 가세. 라고 권하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음식값이 꽤나 비싸서 보통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주로 부자나 양반들이 먹을 수 있어서 약봉댁을 다녀 간 사람들은 크게 자랑을 하였고 세간에서는 약봉댁에서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이 소원이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약주(藥酒), 약과(藥果)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비롯한 것으로, 약현(藥峴)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 하는데 술을 높여서 부를 때 약주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명품음식으로 신뢰가 어떠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서성 선생의 호(號)를 약봉이라 칭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 이씨 부인은 이렇게 약식, 약과, 약주를 만들어 번 돈으로 약현(지금의 서울 중림동)에 대지 오천평 규모의 큰집을 지어 학문을 가르치는 거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후 약봉의 어머니는 자식교육에도 새로운 결단을 하여 오랜 인연을 맺어온 퇴계 학맥과 결별하고 떠오르는 율곡 학맥에게 자식들의 교육을 맡기게 하여 후손의 학문의 혁명적인 번성을 이루게 된다.

조선조에 약봉 가문의 자손은 문과 합격자 105명에 이르며 상신(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9명, 대제학 6명, 당상관 28명, 정2품 이상 관리 34명, 종2품 15명. 3대 정승에 이어 3대 대제학 등 내리 6대에 걸쳐 최고의 후손을 배출하게 된다. 이처럼 약봉의 집안의 번성하기까지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마저도 떨쳐버린 지혜롭고 현명하신 어머니의 커다란 힘이 숨어 있었다. 약봉 서성 가의 묘소는 포천시 설운동에 있는데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새로 당선된 포천시장도 달성 서씨이고 최근에 포천에는 한과가 유명한데 아마도 약봉가의 길한 기운이 아직도 우리 곁에 머물러 기운을 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약봉가의 후손이 시정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우리 고장 포천이 번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목회 단상

백년전쟁

김 창 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중세말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백년전쟁이 있었다. 여러 차례 휴전과 전쟁을 되풀이 하던 중 1347년, 1년 가까이 영국의 공격을 막던 프랑스의 북부도시 칼레는 원병을 기대할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

칼레의 항복 사절은 칼레의 시민 전체가 도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했다. 그때 에드워드 3세는 이렇게 말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은 더 이상 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칼레의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6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조건으로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칼레 시민 스스로 그 6명을 선정하도록 하라."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다. 누군가 6명이 전체 시민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용감하게 칼레 시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그 도시에서 부유하며 지도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국의 국왕이 말한 대로 모두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로 걸어서 영국의 국왕 앞으로 나아 왔다. 그 모습을 본 영국의 왕비가 국왕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간청했다. 그 당시 왕비는 임신 중이었기에 국왕은 왕비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주었다.

그로부터 550년이 지난 1895년 칼레시는 조각가 로뎅(Auguste Rodin,1840.11.12~1917.11.17)에게 그 용감한 6명의 칼레 시민들을 위한 기념동상을 주문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뎅의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de Calais)이다. 지금 영국 런던의 국회의사당 정원에는 이것을 청동으로 떠서 만든 동상이 세워져 있다.

칼레의 용감한 시민 6명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서 칼레시 전체를 살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한 고귀한 희생을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

요한복음 12장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 일러주신다.

문의) 031-532-2489

고령화 사회를 준비한다 ⑤

노인부양

신 재 숙
포천노인복지센터 소장
상담 : 534-4777, 534-8880

노인부양의 개념 및 대상은 나라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부양을 병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도움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부양대상자는 주로 기능장애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양을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능장애나 인지손상이 있는 노인은 물론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가진 노인을 폭넓게 부양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가족부양의 대상은 부양과 관련된 욕구가 있는 모든 노인들입니다. 노인부양은 부양주체에 따라 크게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적 부양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양이고, 공적 부양은 사회보장제도나 공적 부조 혹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부양입니다. 가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노인들 대부분이 가족의 부양을 받기를 희망하고 가족 역시 일차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먼저""가장 많은" 부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중심의 전통이 강하고 공적 부양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노인부양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0~4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그리고 부양에 대한 태도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가정과 공적 부양인 시설에서 부양 할 때의 장, 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양할 때의 장점은 가족이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해 온 사람들과 생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노인의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족 또한 같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에 편안한 부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질병이 치매, 중풍 등으로 중증이면서 장기화되면 사태가 달라집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와 함께 가족구성원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 간의 불화, 부양책임 전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요양시설에 위탁할 때의 장점은 노인의 증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24시간 요양 및 간호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의 의무를 요양시설에서 대신 해 주어 다른 가족들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고, 부양의 책임에 대한 가족 간의 마찰과 불화가 줄어 들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위탁할 때의 단점으로는 시설에 부모님을 입소시켰다는 자책감과 주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장점과 단점은 공존합니다. 노인의 신체, 정신 상태와 가족 간의 관계,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가족 간의 회의를 거친 후 부양방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사회복지 및 의료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잘되고 있는 요양시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노인들에게도 편안한 삶 유지를 위하여 재가노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넓어서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수준도 많이 바뀌어 자신의 사회생활 증가와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주는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도 합니다.

노인부양의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의식변화, 체제 변화, 노인 복지 정책·서비스의 변화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정서와 경제, 사회적인 만족을 어떻게 채워 주는가가 관건이라고 보여 집니다.

자유기고

내 생각

봉사단체에 가입한 후로는 이곳저곳 장애인 시설과 병원의 노인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았다.

경한 환자와는 대화로 병세가 심한 환자에게는 식사, 목욕 등으로 돕는다. 많이 들어오던 말이 자원봉사였으나 실제로 몸으로 실천해 보니 마음만 가지고는 어려운 일인 것을 새삼 느꼈다.

보기에 딱한 환자들이 많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불불 떠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기력이라고는 아예 없고 몸에 붙은 살은 찾아볼 수 없이 깡마르고 눈을 감은 채 병원에서 설치해 놓은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에 의존하여 1년여를 목숨만 이어오는 그야말로 식물과 다름없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보면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고희연(古稀宴)에 모인 노인들의 대화내용도 고생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락한 죽음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5복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그렇다 언제인가는 나도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마감이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의식을 회복할 수 없는 환자라고 의학적인 판단이 선다면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의미 없는 연명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된다.

그러한 환자도 의식불명의 상태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연명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하는 생각 든다.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환자에게 강제적으로 숨만 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의술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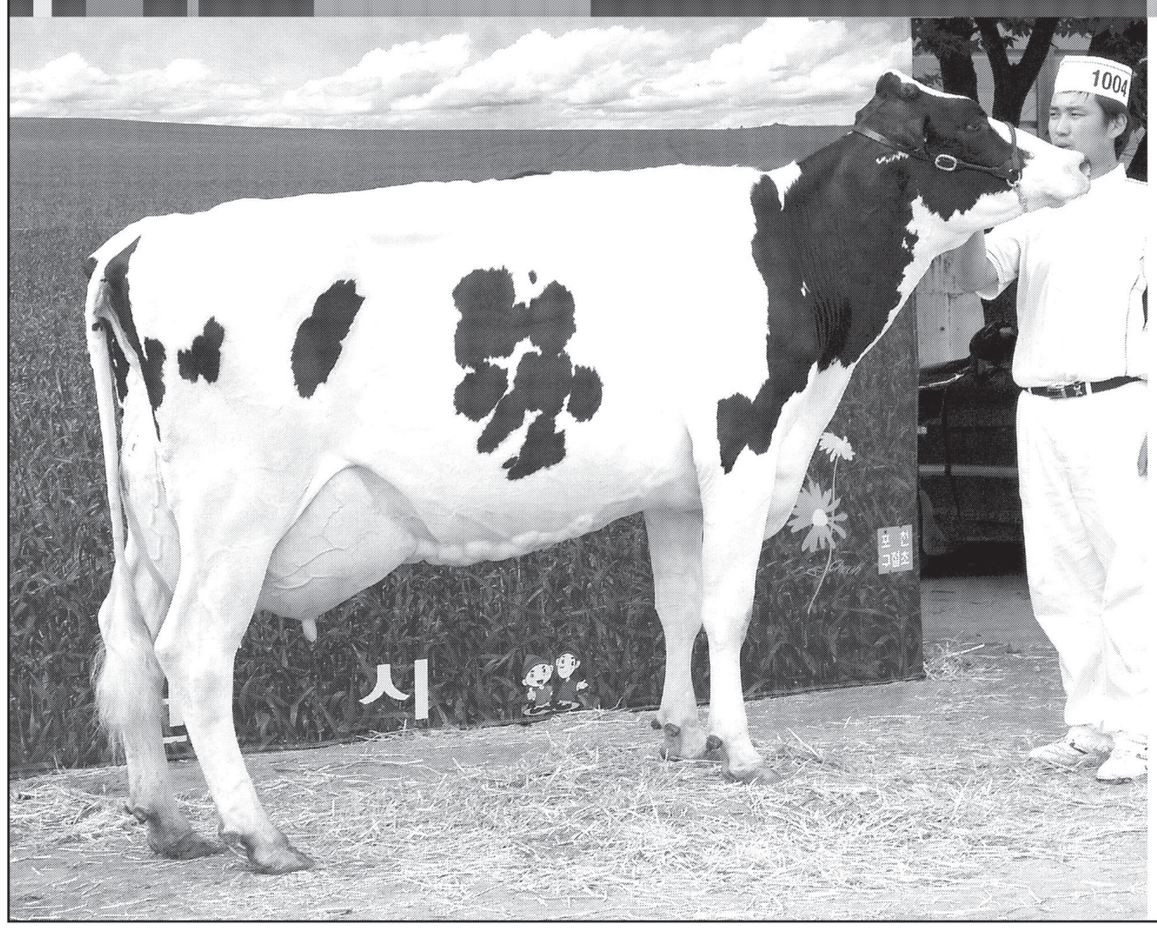
그와 같은 환자에게는 의미 없는 생명의 연장일 뿐 아니라 생명연장장치를 달고 있는 동안 받아야 할 그들의 고통을 생가하면 그 삶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이며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오는 고통 또한 환자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명 연장장치가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환자들은 심사하는 몇 분의 전무의료 기구를 구성하여 이곳에서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고통과 많은 비용을 소비해 가면서 식물인간의 상태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겠다고 생각된다.

사람이 세상에 올 때 내 마음대로 온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숨을 거들 때만큼은 편안히 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될까 하는 착잡한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이와 같은 환자들에게는 더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봉사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조 정 애
前국제라이온스클럽
포천여성상록수회장

2008년 제5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고능력우 확보만이 국제화, 개방화의 살 길입니다.

1. 목적
1) 포천시 축산업의 대외 홍보
2) 포천축산의 미래 발전방향 제시
3) 포천 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4) 우량한 고능력 개체의 개량도 평가 및 미래 개량지표 제시

2. 행사일시 및 장소, 참가현황
1) 개최일시 : **2008. 9. 9(화요일)**
2) 장 소 : **포천시 화현면 지현2리 입구 고수부지**
(천하제일사료하치장 맞은편)
3) 참가인원 : 2,000여명
4) 출품두수 : 125두
5) 출품농가 : 46농가(타시군 농가포함)

3. 행사관련단체
1) 주최 : 포천시
2) 주관 : 포천축산업협동조합, 포천시 홀스타인 검정연합회
3) 후원 : 포천시의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포천시 낙농연합회
포천종합고등학교, 축산신문

4. 출품우자격
• 국내산 홀스타인 젖소
• 경산우 : 유우군 능력검정을 받고 있으며 6~8부 본등록이고 9~10부는 기초등록이어야 한다.
• 미경산우 : 혈통등록 된 소
• 외국에서 수입된 도입우 자체는 출품 불가
• 생년월일을 제1일로 기산하여, 2008년 8월 30일 기준으로 생후 6개월령 이상인 개체
• 출품우 위생 조건
브르셀라병, 결핵병, 네오스포라, 요내병, IBR, 아카바네병에 대하여 소정의 위생검사, 예방접종, 건강검사를 필하고 수의사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부병이 없고, 사마귀 등 체표(유방 포함)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출품우 규격
• 육성우
– 혈통 등록을 필한 개체로 본 등록 이상
– 어미소의 성년형 산유량이 9,000kg 이상이거나 유지량이 340kg 이상인 후대축
– 6개월 ~ 18개월령으로 발육 상태가 양호한 개체
– 법정 전염병 및 피부병이 없는 개체
• 초임우
– 혈통 등록을 필한 개체로 본 등록 이상우
– 어미소의 성년형 산유량이 9,000kg 이상이거나 유지량이 340kg 이상인 후대축
– 19~23개월 사이에서 임신된 개체
• 경산우
– 혈통 등록을 필한 개체로 6부~ 8부는 본등록 이상, 9부~10부는 기초등록 이상
– 국내에서 생산된 홀스타인종 젖소로써 산유능력검정 성적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 낙협, 유업체 등 검정 대상우)이 있는 개체
– 법정 전염병 및 피부평이 없는 개체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 준비위원회